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춘천 「성시축제」의 활성화를 소망하며
춘천 첫 CCM밴드 AD찬양밴드

기획특집

감동을 주는 신앙인

기획연재

『기독신보』에서 본 1920~30년대
엠틀청년회 활동
춘천성시화 운동의 뿌리, 그 수계(水系)를
찾아서 1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여름철 국수열전

영화이야기 오버커머 OVERCOMER

영화감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책속의 책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

성서를 열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건강 여름철 과일 참외

253

Summer 2024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03 춘천 「성시축제」의 활성화를 소망하며 | 우순태 박사

05 춘천 첫 CCM밴드 AD찬양밴드 | 편집부

기획특집

07 감동을 주는 신앙인 | 이연희 목사

기획연재

09 『기독신보』에서 본 1920~30년대 엠윗청년회 활동 | 김동정 장로

12 춘천성시화 운동의 뿌리, 그 수계(水系)를 찾아서 1 | 조용호 박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5 맛 기행 예수의 미소 | 이관형 권사

17 영화이야기 오버커머 OVERCOMER | 김춘배 화백

19 명화감상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20 책 소개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21 건강 여름철 과일 참외 | 이시형 원장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 「성시축제」의 활성화를 소망하며

우순태 박사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특임교수)

이끄는 말

오늘날 한국사회는 온통 축제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모든 정치활동현장, 산업현장, 상업현장, 연구와 학업현장, 여가현장, 그리고 교회와 모든 종교의 활동현장에 이르는 사회전역에서 ‘축제’라는 용어가 사회적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담론의 주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 ‘축제’에 대해 분석, 연구, 적용을 심각하게 요청받고 있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축제는 본래 종교적 행위였다. 구약의 유월절, 맥추절 등 모든 축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인간들 상호 간의 공동체를 위한 코이노니아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예수는 인류에게 축제를 제공하기 위해 힘썼다.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즐기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축제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다가 지금은 영원한 메시아 대축제(대 잔치)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다.



▲ 우순태 박사

종교가 조직화된 여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측면은 스포츠에서 볼 수 있다. 주말의 경기장에 사제와 성가대 가운과 같은 치어리더들의 복장, 찬송가와 같은 합창, 설교와 같은 응원단의 선포와 주문, 적과 아군을 구분하여 나쁜 적을 타도하는 것, 헌신과 결단과 같은 단체의 구호들의 모습은 종교적 양태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축제는 교회 안에서 ‘축’과 ‘제’가 함께 있었다. 중세교회가 예수가 추구했던 축제공동체 운동에서 ‘축(놀이)’을 속되다는 이유로 추방하여 세속화되었고, 교회에는 ‘제’적인 요소(종교적)만 남아서 세상도 교회도 반쪽의 축제 현실이 되었다. 그 결과 현대교회에는 영성만이 남고 놀이가 사라졌으며 사회에는 놀이만 남고 영성을 잃어버린 현실이 되었다. 이로 인해 세속사회는 참 축제를 갈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축제의 기능적 대행물인 여가산업을 발전시켜 21세기 기독교에 위협적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 교회는 기독교축제공동체 운동패러다임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교회에 참 축제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인간의 축제와 예수의 삶

예수님은 전통적인 축제에 즐겨 참석하셨고 동참하여 같이 기뻐하셨다.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

라가서서 민족적인 절기를 뜻있게 그리고 즐겁게 사람들과 같이 지내셨을 뿐 아니라,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공생애 첫 기적으로 행하여 사람들의 흥겨운 기분을 북돋아 주셨다. 연회에 초대될 때 거절하지 않고 참석하셔서 같이 즐기며 기쁨을 나누셨다. 그래서 심지어 먹고 마시는 자라는 편잔을 받을 지경이었다. 예수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결코 고행주의를 주장하거나 실천한 일이 없다. 사람들의 축제를 결코 좌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복된 것으로 시인하신 것 같다.

예수는 마침내 당신의 살과 피를 아니 온몸을 유월절 대축제의 제물로 바치셨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푸셨던 최후의 만찬은 예수의 살을 같이 먹고 그의 피를 같이 마시는 잔치였다.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그 연회를 가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축제요 잔치였다. 내일이면 잡혀서 죽게 될 찰나에도 그는 제자들과 축제를 같이 즐겼으며, 동시에 그는 자기 온몸을 제물로 잡아서 인간의 대축제의 식물로 제공하셨다. 그는 세상을 떠나시는 시간에 당신 몸을 십자가에 달아 살을 찢고 피를 온통 흘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해하고 한 식탁에 마주 앉는 연회를 가능하게 하셨다. 우주적인 대 연회를 가능케 하시려고 희생하시는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하여 결국 오고 오는 세대에 온 땅에 있는 인간이 그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영원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리스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영원한 축제를 바라보면서 현재에는 성찬 상에서, 그리고 신령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서 이미 그 영원한 축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춘천 지역사회에서 참된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신학적으로 본래 예수의 축제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축제를 잃어버린 현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하며 교인들을 축제로 초대할 뿐 아니라 축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회 내의 참된 축제를 되찾기 위해 예배의 축제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때까지 형식적으로 지키던 교회력의 절기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향유하는 축제로 변화해야 한다. 교회는 문화의 세기인 현실에서 기독교의 축제를 교회 안의 자폐증적 행사로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와 함께 향유하는 축제로 개방하여 모든 족속을 잔치로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려야 한다. 나아가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문화행사를 비기독교인들도 어색함 없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감각을 조율하는 배려를 하여 효율성이 있는 문화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오늘의 교회는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자폐증적이며, 염세적 문화생활로 교회 안에만 침거하였던 것을 반성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함께하여야 한다. 이제 교회는 지역사회의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담지 된 참된 축제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를 힘써야 한다.

춘천 첫 CCM밴드 AD찬양밴드

편집부

나무위키백과에서 CCM찬양 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한국에는 1960~70년대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부흥운동과 결부되어 미국으로부터 가스펠(Gospel, 복음성가)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미국 기독교 음악의 무게 중심이 가스펠 쪽에서 점점 CCM으로 옮겨가면서 한국에도 미국의 CCM이 번안되어 들어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박종호(朴鍾昊, 1962~), 송정미(Song Jungmee, 1967~),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등 복음



성가 가수들과, ‘주찬양 선교단’을 통해 한국 CCM을 선도했다고 평가받는 최덕신 등의 활약으로 한국의 개신교 문화에 CCM이 자리를 잡아갔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선교 단체 등에서 본격적인 예배의 형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개신교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한 은혜로운 밴드가 춘천에도 탄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홍정원 집사(순복음춘천교회)를 단장으로 한 ‘AD찬양밴드’이다. 홍정원 집사는 10여 년 전부터 ‘춘천에 가면’ 등 여러 앨범도 내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역 문화 행사에 거의 자원봉사로 가수 활동을 했는데 과로로 인하여 한동안 요양으로 쉬던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로운 찬양으로 거듭나 활동을 하게 되었다.

지난 4월 27일 CBS 춘천방송국 공개홀에서 창단 공연을 가졌다. 피아노, 첼로, 트럼펫, 기타 등 여러 악기의 연주로 ‘주만 바라볼찌라’, ‘이제 역전되리라’, ‘Way Maker’, ‘낮은 데로 임하소서’, 등 10여 곡을 발표하며 은혜로운 출발을 하였다.

홍정원 단장은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분야의 전공자들로 전문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구성되었으며, 단원 모두 크리스천으로 그동안 몸담았던 각 연주단체와 밴드경력 등이 자양분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음악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동료가 생기게 됨으로써 한 단계,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음악으로 발전시켜 CCM 빅밴드를 통하여 기독교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 그리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면서 음악적 완성도를 이루고자 창단되었다.”고 소개하였다.

“‘AD’ 밴드는 사도라는 뜻의 Apostle과 Discipl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으며, 또 AD는 Anno Domini의 약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기원년을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현재 온 지구상의 연도표기만 해도 AD 2024년을 쓰기에 밴드 이름을 ‘AD밴드’라 명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임 단원 수는 12명인데 본의 아니게 성경적인 숫자 12가 되었음이 의미가 깊다. 12지파, 12사도 등 ...

앞으로의 사역 방향은 춘천 각 성시화 교회와 연계한 초청찬양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에 산천리무지개교회 야외무대에서 시민음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제1회 정기공연으로 상상마당 춘천에서의 ‘주 예수 찬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의 선율이 주님의 기뻐하심과 함께 성시 춘천에 가득 충만하게 될 기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감동을 주는 신앙인

김화숙 권사 / 춘천마마클럽 대표(순복음춘천교회 권사)

이연희 목사(아미교회)

많은 종류의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중의 복이 아닐까요?

한 사람,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세대를 계승하는 귀한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춘천마마클럽대표로 섬기시는 김화숙 권사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번 호에서는 김 권사님의 은혜로운 신앙여정을 두 번에 걸쳐 나누고자 합니다.

1. 복음으로 가문을 새롭게 재건하는 여인,



김화숙 권사님은 외가 쪽의 돈독한 신앙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 슬하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불신자 아버지는 성장한 딸 권사님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사회환경이라고 합니다. 가정환경, 교육환경, 성장환경 등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진로와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외가택에서 예수 믿고 시집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권사님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교회중심으로 자랐으며, 외가 쪽으로도 외할머니 외삼촌들의 신앙올타리 속에서 그분들의 신앙을 닦아 성장하였습니다. 실례로 성경학교도 출석하던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외가 쪽 성경학교도 가고, 이웃교회 성경학교도 가서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사회생활, 관계훈련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풍요한 인격과 인성을 함양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군대동기인 지금의 남편 장로님은 불신자였지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친해져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혼 직후 유학시절에 쉽게 교회를 가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도록 순직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민비 가문의 32대손 여흥 민씨 가문의 4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만며느리가 되어 가문의 족보와 집안의 가풍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권사님의 인성에 심어진 신앙심으로 가문의 명예와 영광을 존중하면서 믿음의 능력

을 삶으로 드러내며, 한 가정의 아내와 며느리, 엄마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존경하며, 집안의 가풍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두르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가정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사문화나, 교회생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예수’를 몸소 실천하므로 온 가정이 구원에 이르고 가문을 새롭게 재건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지구과학을 전공한 남편과 평생 공직생활에 몸담으신 시부모님을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오시게 하신 권사님의 지혜는 가정사역의 대가요, 춘천 마마클럽의 리더로 활약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큰 은혜의 여정을 지나오셨습니다.

2. 고별제사를 드리시며 결단하신 시아버지의 회심

덕망 있게 가정과 남편을 섬기는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던 시아버지는, 아버지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쓴 편지를 읽고 답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학교를 다니던 남편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고, 아들의 편지를 받은 시아버지는 아들 장로에게 답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 편지를 주고받은 아버지와 아들은 딸며느리의 오랜 기도의 응답을 결실로 안겨 주었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결단,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신앙성숙을 위해 아버지학교를 권한 지혜로운 아내 권사님의 기도과 섬김은 가문을 중시하고, 유교의 전통을 고수하시던 시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고, 유교전통의 가문에서 예배하는 가정으로의 새로운 탄생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2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편지를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평생 가르치시는 스승의 길을 걸어오신 시아버지는 신앙적 결단을 할 때 깊은 인상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던 제사문화를 정리하시던 마지막 제사 때의 시아버지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장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조상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오늘이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후부터 저는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고별 제사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제사 문화에 효 사상을 담아 전해져오고, 답습해온 분들 중, 제사를 끝내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 그냥 변경하였다고 들었지, 고별제사나, 인사를 드리는 예를 갖췄다는 이야기는 쉽게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20여 년을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자연스레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늦게 믿게 되었지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손주들이 찾아오면 성경이야기를 물어보며 손주들에게 역 성경공부를 하시는 모습은 귀한 시부모님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교회생활, 권사님의 교회 섬김이, 봉사활동, 여전도회 임원으로 활동하신 25년의 은혜로운 여정과 마마클럽대표의 이야기는 다음호에 이어지겠습니다.

『기독신보』에서 본 1920~30년대 엠피청년회 활동

김동정 장로

(춘천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엠피청년회(Epworth League)는 1889년 미국에서 창설된 감리교의 청년 단체로, ‘엠피’은 요한 웨슬리(J. Wesley)의 고향 이름에서 따왔다. ‘엠피’는 한자로 ‘의법’(懿法)이며, ‘懿法’은 ‘올바른 모본’이란 뜻이다. 1897년 한국선교연회에서 조이스(Bishop I.W. Joyce) 감독이 엠피청년회의 설립을 권면하였고 그해 5월 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창립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상동교회 청년들이 조약에 항의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일로 1906년 엠피청년회의 해산이 결정되었다. 1916년 재건된 엠피청년회는 전도대회, 문맹퇴치, 한글교육 등 농촌계몽활동을 하였다. 심훈 작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908년 제물포교회의 요청에 따라 존스 선교사가 엠피청년회의 재조직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되고 말았다. 그러나 1916년 조선연회에서 이익모, 이하영, 손정도, 김유순 등 한국인 연회원들의 청원으로 엠피청년회의 재조직이 결정되었다. 이후 개 교회 청년회가 속속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3·1운동이후 청년운동 전체가 활기를 띠면서 개 교회 청년회 조직결성은 더욱 활발해졌다. 1920년대 말까지 미감리회 엠피청년회는 전국 13개 지역에 전체회원 2천여 명을 웃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남감리회 엠피청년회도 가파르게 성장하여, 전국에 72개 청년회가 조직되었고 전체회원은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3·1 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청년회’가 조직되어 민족 계몽운동과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는데 춘천에서는 교회가 그 현장이 되었다. 1920년 당시 춘천 구역 담임이던 유한익 목사와 춘천에서 요양 중이던 홍종숙 목사, 그리고 정명여학교 교사로서 춘천영어야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지달원 등이 청년회 창설 발기인으로 활동하였고, 이미 춘천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청년들과 새로 시작한 영어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춘천 엠피청년회’를 조직하였다. 창립 당시 명칭을 ‘춘천지방엠피청년회’라 한 것은 이 조직을 춘천교회 안에 두기보다는 춘천지방 교회 청년들의 연합 모임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 구성이나 실질적인 운영은 춘천교회 목회자와 청년 교인들로 이루어졌기에 ‘춘천교회 엠피청년회’라 불렸다. 6월 19일 대판리 예배당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회장(홍종숙)과 부회장(지달원) 외에 종교부장(최태근), 자선부장(최태진), 문학부장(김형식), 사회부장(최태경), 운동부장(방희원)을 둔 것에서 엠피청년회가 전개하였던 사업과 활동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복음 전도와 신앙교육이라는 교회의 근본 선교활동 외에 친교와 계몽, 사회 구제 등의 지역사회 활동을 겸하여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춘천에는 이보다 전에 ‘춘천청년구락부’라는 청년 단체가 있었으나 그 회원들이 독립운동 관련자 출옥 환영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1920년 7월 강제 해산되어 엽윗청년회는 춘천의 유일한 청년 단체로 민족의식을 가진 지역 청년들을 흡수하였다.

1920년대 춘천교회의 ‘청년성’을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던 춘천교회 엽윗청년회는 1930년대 들어서도 꾸준한 활동을 벌였다. 엽윗청년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는 교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였는데 외지의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종종 강연회를 열었다. 즉, 춘천교회 엽윗청년회는 1930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성서학자 김인영(金仁泳) 목사를 초빙하여 ‘청년 수양대회’를 열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교회 청년들은 춘천지역 빈민구제활동에 나섰다. 『기독신보』(1930.2.19)에서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一월 二十七일에 춘천읍교회 엽청년회에서는 당지 빈민들을 위하여 소미(小米) 1석(一石) 1두(一斗) 7승(七升)을 분배하였다는대 그것은 지난 十二月 二十八일 통상회(通常會)에서 발론(發論)이 되어 본래 구제 목적으로 된 회에서 저축하였든 금 八원과 그 시(時) 당장에서 연보한 九원 五十전 합계 十七원 五十전을 가지고 한 것이라더라.

춘천교회 엽청년회 회원들은 1929년 성탄절에 빈민구제헌금을 실시하여 모았던 8원과 신앙 강연회 직후 다시 헌금하여 모은 9원 50전으로 쌀 한 가마, 한 말, 7되를 사서 지역의 가난한 빈민들에게 나누어주었던 것이다. 이 같은 청년들의 구제활동은 어른 교인들을 감동시켜 춘천교회 차원의 구제사업을 전개하도록 만들었다. 즉, 그해(1930년) 12월 춘천교회 교인들은 성탄절을 지키면서 빈민구제를 위해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였다. 역시 『기독신보』(1931.1.7)의 보도다.

춘천읍교회에서는 금번 구주성탄에 장소상 관계로 축하식을 二十四일 二十五일 양일을 정하고 二十四일은 장년만 二十五일은 유년만 모히여서 축하하였는데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순서에 신불신(信不信) 간에 구주탄생에 대하여 일층 더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한다. 겸하여 금번 성탄을 리용해서 본 교회 임원 제씨의 활동으로 재래 조선에 유명한 음식(藥食)을 만드러서 일반 유지의 동정으로 약 三十여원에 금액을 모집하여 이 추운 겨울에 의식에 곤란으로 마흔 고생을 당하는 여러분의게 다소의 동정을 표하여서 구주의 탄생하신 그 정신을 맺 만분에 일이라도 낮가내었다 한다.

교회 임원들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약식’을 만들어 교인과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30여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빈민구제사업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탄절과 겨울철 춘천교회 교인들의 빈민구제활동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1931년 2월에는 음력설을 맞아 엽윗청년회 회원들이

망년회를 겸한 옷놀이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춘천교회 엠윗청년회 옷놀이대회까지 『기독신보』(1931.3.4)에서는 보도하였다.

춘천읍교회 엠윗청년회 주최로 지난 十六일(음 十二月二十九日) 하오 七시에 본 회관에서 二十六명의 회원이 모히여서 망년회 겸 적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본회 사교부장 왕창업씨 사회로 적백군을 난호여서 승부를 결(決)키 위하여 양군의 응원은 자못 맹렬하였든 바 결국 우승팀은 백군이 되었고 승부 결과에 의하여 시상식까지 유하여서 일반 회원의게 만흔 흥미를 주었다 한다.

이런 식으로 춘천교회 엠윗청년회 활동은 춘천뿐 아니라 전국 교회에 ‘모범적인’ 기관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춘천교회 엠윗청년회는 1931년 1월 독자적인 회관을 갖게 됨으로 다른 교회 청년회의 부러움을 샀다. 그 사실도 『기독신보』(1931.2.25)가 자세히 보도하였다.

춘천읍교회 엠윗청년회에서는 창립 이래 일반 임원과 회원 전부가 유감으로 생각하던 것은 회관 문제이던 바 저간 당지 선교사 부라만씨와 누차 교섭한 결과 기독교병원 중 1칸(一間)을 본회 회관으로 사용하게 된 바 一월 三十一일 하오 七시에 개관식 겸 一월 통상회(通常會)로 회집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그 뿐만 아니라 금후로는 매주 말, 금, 토, 三일간은 하오 七시부터 동 十시까지 정기로 개관하게 되어서 일반 회원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교우는 누구시든지 집회하여 정신상 수양과 오락 등으로 만흔 자미와 유익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한다.

엠윗청년회는 1924년 교회가 허문리 예배당을 마련한 후 예배당을 집회와 모임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청년회원들은 1926년 춘천 선교부가 의료 사업을 중단한 후 비어 있던 춘천병원 건물 일부를 청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선교부 책임자 브래넌에게 요청한 결과 방 한 칸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1931년 1월 31일 ‘춘천 엠윗청년회관’ 현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회관을 마련한 춘천교회 엠윗청년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을 것은 당연하였다. 청년회원들은 이 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상회’(월례회)를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하였고, 주말 3일간은 저녁마다 회관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하여 기도 모임과 휴양, 친교 활동을 갖도록 하였다. 춘천에 교회 청년뿐 아니라 일반 청년·학생들을 위한 모임과 활동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일제 말기 정치적 감시와 탄압으로 청년·학생들의 사회적 활동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던 시기에 교회는 이들에게 집회와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조선 청년’의 기개와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춘천성시화 운동의 뿌리, 그 수계(水系)를 찾아서 1

— 고 이연호 화가목사님

조용호 박사
(춘천성시화연구소장)

성시화운동은 영혼구원과 사회적 책임이 만나 만들어가는 역사이다. 역사는 재능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실천하는 기록이다. 진리는 시대를 단지 따르기보다 시대를 진단하고, 재능은 그 진단 결과를 실천하는 길을 걷게 한다. 그리고 믿음은 한결같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준다.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의 진리(the truth)에 비추어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the talented)이 함께 또는 홀로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운동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춘천성시화운동의 출발점을 1972년 7월 31일 전도강습으로 보는 것은 인위적인 관점 같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history in the making) 하나님은 춘천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니 춘천지역에 성읍이 형성될 때부터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 아름다운 도시, 성스러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걷게 하고 계신다.



〈상록회 사건으로 복역 중인 사진/1939년〉

심인물은 이연호였다. 1934년 4월 가정 형편으로 황해도 안악에서 춘천고 입학의 계기로 춘천으로 이사와 1941년 서대문형무소로 옮겨지기까지 7년의 세월을 보내기까지 이연호의 삶을 간략히 제 목만 정리하면 이렇다. 매주 토요일 저녁 감리교 벨슨 여선교사와 영어성경공부, 매일 봉의산 정상

1937년 2월부터 1940년 1월 25일 선고 공판 날까지 춘천지역은 “춘천 고보 상록회 학생운동”으로 떠들썩하였다. 137명이 체포되어 37명이 검찰로 이송되고 최종 재판에 기소되어 12명이 징역 2년 6개월(10명), 징역 1년 6개월(2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도시 전체는 물론 전국이 술렁거렸을 것이다. 이 학생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중

에서의 산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놓고 전도하던 모습에 감명받아 평생 기독교미술에 심취하여 화가가 된 일, 비밀독서회를 만들어 봉의산 정상에서 가진 월례회, 우두산에서 가진 사회주의 계열 무명그룹과의 논쟁(상록회 회장이었던 이연호는 무명그룹의 사회주의 노선을 반대하며 “영(靈)의 개혁”을 역설), 상록회 사건 당시 사상검사였던 나가사키 유조가 이연호를 가정교사로 삼은 일 등 (한국기독교공보 1996, 2, 24. - 8, 31, 연재 참고).



〈원제, 소양정의 걸인들〉

당초 1937년 춘천고 복도에 걸려있다가 소실된 후 1962년 〈왕의 손님들〉로 다시 그린 것

서대문형무소로 옮겨간 이연호는 1943년 출옥하여 감신대(해방 후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용산의 빈민촌에서 빈민목사로 사역을 시작한다. 용산의 미군부대를 방문하여 초상화를 그려주며 받은 돈은 빈민사역 재정에 충당하였다. 빈민사역은 당시 전쟁 타인지 국내보다는 해외에 널리 알려졌다. 1948년 2월 16일부터 1953년까지 5차례 걸쳐 Time지에 실린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사를 보고 콘셋막사를, 김구는 친필과 이십만 원을, 서울시장 윤보선은 하천부지 사용 허가를 해주어 아내 정용득(의사)이 빈민사역에 필요한 무료병원건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1974년 완공한 이촌동교회는 이연호 목사가 디자인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건축물로 유명하다. 1999년 2월 6일 소천 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정년퇴직한 최종고 교수가 2014년 “화가 목사 이연호 평전”을 쓰게 된 이야기를 읽노라면 춘천이 키운 이연호 목사님의 삶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그의 조용한 품성은 평전의 마지막 장을 덮어도 이연호 목사님

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우선 초대 기독교미술협회장을 지내신 이연호 목사님과 깊은 신앙적인 교류를 하시던 분이 춘천의 금병산 자락 예예동산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채화의 거장이신 유명에 권사님은 그림치료의 원조이시다. 개인 전시회를 할 때까지 무료로 이루어지는 권사님의 미술교육이 춘천 실레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보노라면, 하나님이 맺어주는 믿음의 영적 교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연호 목사님은 1990년 건국훈장을 받으시고 지금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6월이 가기 전에 두 분의 교제 이야기와 용산의 이촌동교회, 초대 관장을 지내신 장신대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러 한다. 21세기 풍요로운 이 시대 성시화가 무엇인지 주님은 인도하시리라.

상록호 사건당시 경찰신문기록 발췌

경 찰 : 민족주의는 어떤 것인가

이연호 : 민족주의는 혈통이 같은 민족이 다른 민족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기 민족이 정치와 경제 등 모두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조선인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선 민족의 손에 의해 정치와 경제를 모두 통괄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경 찰 : 피의자는 민족주의를 공명하는가?

이연호 : 배일적 민족족주의로 알려진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民主義)에 공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1937년 말 예수교 신앙의 힘으로 민주의로 변하게 되었는데, 정의와 인도, 즉 영(靈)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 한층 공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국수열전

이관형 원장(춘천 자연유치원)

반백이 된 나이에 그리운 옛 분식점

연일 후덥지근한 날씨에 오늘따라 비라도 추적추적 내리기라도 하면, 오래전 문을 닫은 명동 ‘구법원’의 라면과 고로케가 생각난다. 사실 그리운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고딩 시절에 미팅했던 친구들이 생각난다.

교련복에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당면 수북한 떡볶이와 튀김을 앞에 두고 여친 없는 남친끼리들 모여 으리(의리)를 외치던, 그러면서도 매번 주위에 있는 여고생들을 가슴 두근거리며 뒤돌아봤던 요선동 탐거리 근처 ‘요선떡볶이집’ 아직도 건재한? ‘빼빼스넥’의 칼국수와 김밥. 하지만 칼국수에 바지락은 감자만을 남겨둔 채 오래전에 가출하여 추억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진다. 소양극장 앞 ‘왕짱구’ 집의 모리소바와 왕만두! 온의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맛에 대한 생소한 느낌은 나만 느끼는 걸까? 중앙극장 부근의 ‘별미당’에서 파는 별 재료 없는 떡볶이와 튀김만두, 하지만 추억만은 꽤 찬 맛있는 음식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문을 닫은 낙원동 가구골목 ‘무교통닭’ 집의 통닭과 콩국수는 오랜 세월 동안 단골집이라 이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짝하다.



여름철을 책임질 보양식 국수

이번 호에는 여름철 특별한 디저트인 팔빙수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했으나, 맛있다고 소문난 팔빙수는 거의 체인점이며 가격 또한 월급쟁이들의 점심 한 끼 식사비보다 비싸다 보니 겸손한 생활습관이 몸에 밴 우리 교인들에겐 현실성이 없어 우리나라 서민의 대표적 음식인 ‘국수’에 관한 글을 올리기로 했다. 동치미국수, 팔국수, 어탕국수, 설탕국수, 죽계국수, 모시국수, 고기국수 등등 지역별 계절별 특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국수 이름이 셀 수 없이 많기도 하지만, 집에서 열무김치국수, 골뱅이비빔국수, 오이냉국수, 김치비빔국수 등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집에서 하다보면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국수 맛 또한 육수가 대부분 결정하기에 이 여름을 이겨 낼 수 있는 춘천 내 국숫집을 소개하되 국수뿐만 아니라 국수와 잘 어울리는(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음식을 같이 소개한다.

느랏재 터널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이름 없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달팽이(다슬기)국수와 달팽이(분위기는 허술하지만 맛이며 주변 경관은 시원하니 좋다.) ‘구봉산 공원전망대’의 잔치국수와 백김치(조금 비싼 듯하지만 먹고 나면 절대 후회 안 함) 후평동에서 스므썬 먹자골목으로 이사 간 ‘이모네 해물칼국수’의 칼국수와 보리밥(무채와 고추장에 석석 비빈 보리밥), 소양교 건너 위도 방향 쪽 ‘평양냉면’ 집의 물냉면과 빈대떡(빈대떡을 냉면육수에 푹 담가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다들 믿질 않는다.) 운교동 사거리 근처 ‘박S푸드’의 냉우동과 삼겹김밥, 공지천 ‘백일칼국수’의 칼국수와 튀김만두, 중앙시장 내 ‘낭만국시’의 잔치국수, 그런데 살짝 결들일 김밥이 없어 아쉽다.

이 밖에도 국수 이야기를 하자면 닭갈비와 막국수 만큼 긴 분량이라 필자의 국수에 관한 지극히 주관적인 맛의 글은 여기까지 한다.



국수를 먹을 때 두 가지 주의할 점은

금복주? 미쉐린타이어? 모델 같았던 필자가 나름대로 다이어트에 관심을 두어 몸무게를 조금씩 감량하는 과정에서 국수를 먹을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알려드린다.

첫 번째, 저염식으로 먹어야 한다.

저염식은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수에 다대기(양념장)라든지 간장, 소금, 김치 등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 심심하게 저염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과식을 하면 안 된다.

국수는 빨리 소화가 된다고 하여 국수 곱빼기에 심지어 콩국수에 밥을 말아 먹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필자 생각에는, 아니 필자의 경험에는 체중조절에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욕을 두려워하듯이 과식 또한 두려워해야 한다.’

여름의 어원은 태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열매가 열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무더운 이 여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다들 알고는 있지만 맺지를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의 감격함으로 헌신하는 열매를 이번 여름에 꼭 맺어보자.

아울러 목사님께 국수보다 더 좋은 여름 보양식을 꼭 챙겨드리는 건 어떨는지?

오버커머 OVERCOMER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올여름에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 대한민국은 축구 본선 출전이 좌절되었지만, 수영에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올림픽 종목 중에 크로스컨트리(크로스컨트리)가 있다. 크로스컨트리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코스에서 행해지는, 즉 원형 트랙이 아닌 언덕, 목초지, 도로 등 다양한 지역을 달리는 가혹한 장거리 경주이다.

수많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 온 알렉스 켄드릭 감독이 <믿음의 승부>에서 미식축구를 다루었는데, 이번에 크로스컨트리라는 경기 종목으로 믿음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크로스컨트리 cross-country'에서 보듯 '크로스'가 십자가 cross를 뜻함에서 암시하는 신앙적 의미에 주목했는지 모른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이자 농구팀 코치인 '존 해리슨'은 갑작스럽게 자신이 맡고 있는 농구팀이 해체되면서 원치 않게 크로스컨트리 육상 코치직을 맡게 된다. 학생 중 누구도 크로스컨트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서를 낸 학생은 천식을 앓고 있는 '해나 스콧' 뿐. 해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자신의 삶에서 오는 결핍을 도벽으로 풀어가고 있었다. 마지못해 '해나 스콧'과 연습을 이어가게 된 '존 해리슨'은 그녀가 육상 선수로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가르치게 된다, 그러던 중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을 따라간 병문안에서 '토마스'를 만나게 되는데 토마스는 3년 전 시력을 잃고, 당뇨병으로 인해 다리도 신장도 온전치 않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는 주에서 3위 안에 들

만큼 뛰어난 크로스컨트리 선수였고, 그에게 자문하며 존은 자신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그는 해나가 토마스의 딸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마스와 해나는 극적으로 재회를 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 또한, 존의 노력으로 마지막 크로스컨트리 주 챔피언십 대회 때 해나에게 이어폰을 통해 토마스가 코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영화의 말미에,

“저는 제 존재가 실수인 것만 같았고, 이 세상에 제 자리는 없는 듯했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 듯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혼란스러운 정보만 주었고 대부분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게 됐을 때 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건 문화적인 배경이나 제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물을 정의하는 건 온전히 창조주의 권리입니다. 여전히 좋은 날도 있는가 하면 나쁜 날도 있어요. 지금도 힘든 일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제 곁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모든 걸 극복하셨습니다. 죄악, 고통, 죽음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분과 함께 걸어요. 매일 그분을 신뢰하죠. 그분 안에서 제 정체성을 찾았으니 저는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답니다.”

“저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요,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전개되는 해나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

‘사랑’, ‘용서’,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져가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정말 파스한 감성을 지닌 영화로 모든 성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다. 당 영화는 OTT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245.7×112cm
oil on canvas & wood

멋진 작품을 그리고 싶어 하는 화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부는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 적은 것을 많게,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지요. 사랑 없이는 아름다움도 없어요.” 화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목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牧사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목사의 말에도 수긍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았다.

때마침 지나가는 한 지친 병사에게 물었더니, 병사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라고 대답했다.

순간 화가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데 모으면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았다.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매우 놀랐다. 바로, 아이들의 눈 속에서 믿음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아내의 눈에서는 사랑을 보았으며,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 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완성했다.

프레데릭 모건 Frederick Morgan

요약 19세기 영국의 화가.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일상의 소박한 풍경을 즐겨 그려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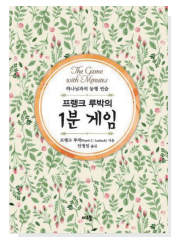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 / 프랭크 루박 지음 / 안정임 옮김 / 더드림

지난 유기성 목사님의 집회를 다녀오면서 다시금 ‘시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다.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삶...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바로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이다. 매 순간 하나님을 따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분의 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 ‘프랭크 루박의 편지’도 참고하면 좋겠다.)



성서를 열다 / 토머스 머튼 지음 / 정다운 옮김 / 비아

그리스도교 영성가이자 수도사였던 토머스 머튼의 마지막 원고 중 하나가 새롭게 출간되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인 성서에 어떻게 들어가고, 무엇을 기대하며, 성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며, 무엇이 열리는지... 얇은 책속에서 놓칠 수 없는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첫 장을 열면 성서는 어떤 책인가란 질문에 ‘성서는 인간의 정신에 상처를 내며, 당황하게 만들고 놀라게 합니다.’라는 말에서부터 이 책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자신이 읽어오고, 대해왔던 방식을 내려놓고, 이분의 말씀처럼 성서를 이해하는 분투의 여정에 참여해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더 알아갔으면 한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 이화정 지음 / 신울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난 엄마의 일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삶과 신앙이 펼쳐졌다. 가혹한 삶의 형편에서도 유일한 빛이고 희망이고 위로였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던 엄마의 기도 일기는 그 자체가 감동이어서 앉은 자리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인물은 아니어도, 그 어떤 성인의 일기보다 더 소중한 일상에서의 기록을 만나면서 자신도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일기로 남겨보는 것은 어떨지...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름철 과일 참외

이시형 (이시형한의원 원장)

여름철 과일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참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참외는 1차 원산지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2차 원산지는 중국, 이란, 터키, 인도 등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들어와 참외가 되었다. 영어로는 ‘한국 멜론’(Korean melon)으로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재배된다.

참외는 주성분이 90%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량도 낮아 포만감을 주기에 다이어트할 때 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있어 항산화 기능을 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한다. 엽산과 철분이 풍부하여 임산부에게도 적당하다.

23년에는 한국산 참외에 있는 가바(GABA)성분이 일이나 공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이 되었다.

동의보감에서 살펴보면 성질이 차고 맛이 달다. 갈증을 멎게 하고 번열을 없애며 오줌을 잘 나가게 한다. 또한 입과 코에 생긴 헌데를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가워지고 팔다리의 힘이 없어진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치료하고 무더운 여름에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으므로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 보통은 참외껍질을 벗겨서 식사 후에 먹는다고 언급되었다.

참외씨는 뱃속에 몰려 뭉친 것을 치료하는데 고름과 피가 뭉친 것을 터져 나오게 하고 위장에 생긴 염증을 치료한다.

참외 꼭지는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독이 있다. 온몸이 부은 것을 치료하고 코안에 생긴 군상을 없애고 황달을 치료하며 여러 가지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체했을 때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게 한다.

참외 잎은 탈모에 즙을 내어 바르며 참외꽃은 가슴앓이와 딸꾹질을 치료한다.
이렇듯 참외는 모든 부분을 한약재로 이용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참외는 여름철 더위를 해소해 주는 과일이지만, 성질이 찬 음식이므로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이 차고 찬 것 드시면 설사를 하는 분이라면 되도록 많이 드시지 말기 바란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갈증이 있으며 번열감이 있는 분이라면 알맞은 과일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동의보감. 위키백과. 체질 따라 약이 되는 음식 224(김달래 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박복연 박해옥 박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현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옥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철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옥 김종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남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정원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준하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손갑수 손근영 손미화 손수정 손영인 손정심 손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소흙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애 오소연 오제영 오홍금 오홍수
 용애중 용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술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영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학묵 윤홍복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숙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희 이미영 이병필 이병철 이병연 이선임
 이상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는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호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기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운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치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도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운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욱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중대 최종민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한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희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음 황변구

후원교회

갈릴리감리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신성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춘천은누리교회 하늘평안교회
 강변제일성결교회 새춘천성결교회 아미교회 주찬양교회 춘천우리교회 한빛교회
 강원침례교회 석사감리교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주향교회 춘천은평교회 한울섬김교회
 거성침례교회 소양감리교회 엠마오교회 초대교회 춘천은혜장로교회 화목교회
 그말씀양문교회 소양성결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축복교회 춘천일신교회 효신장로교회
 나눔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예담장로교회 춘천광명장로교회 춘천장로교회 효자감리교회
 더좋은순복음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예사랑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후평제일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예수촌교회 춘천광장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밝은빛장로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침례교회
 사랑의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우두감리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평화교회
 사암성결교회 섬이있는교회 임마누엘교회 춘천성광교회 평성성결교회
 산솔교회 신복교회 제자감리교회 춘천예담교회 하늘기쁨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단체)이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 신한 131-005-937566(춘천시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수형, 김훈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김훈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술
 편집·발행 춘천시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1972@daum.net

성시 7월/성경퍼즐퀴즈 : 가족들과 함께 맞춰보세요

참여방법

7월 31일까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자 5명에게 소정의 상품(상품권 1매)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010-9698-2993)

지난 호 정답자 김*수, 김*정, 김*배, 이*덕

	1				2		5-2
3		4-2					
		4-1					
				6-2			
		5-1					
		6-1					

* 가로 힌트

1. 지혜로운 자의 혀는?(잠12장)
2. 문둥병 걸린 아람장군은?(왕하5장)
3. 주의 청년을 일컫는 말은?(시110편)
- 4-1. 잇도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은?(속1장)
- 5-1. 병어리가 된 사가라의 아내는?(눅1장)
- 6-1. 주의길을 예비하라고 예언한 선지자는?(마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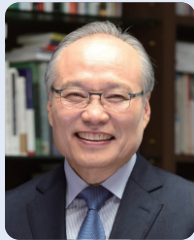
* 세로 힌트

1.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갈5장)
2. 롯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보낸 사람?(롯2장)
3.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은?(계21장)
- 4-2.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름?(창32장)
- 5-2.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갈6장)
- 6-2. 성경 중 두 번째로 장수가 많은 성경은?

2024 52주년 춘천시선교대회

9월 1일(주일)~7일(토)

춘천온누리교회



성시저녁집회

일시 : 1일(주) - 4일(수), 저녁 7:30

장소 : 춘천온누리교회

강사 : 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 담임, 백석대학교 백석신학대학원 원장)



통큰통독 세미나

강사 : 주해홍 목사
(통큰통독 저자)

기간 : 8월 24일~12월 14일(매주 토요일, 17주)
오전10:00-오후1:00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회비 : 사전접수(8만원), 현장접수(9만원)
- 성경책, 교과서 구입

제3회 기독교동 미술 작품 공모전

출품기간 : 8월 1일(목)~8월 23일(금)

심사 : 8월 27일(화) 한국미술연구회

심사발표 : 9월 29일(목)

전시기간 : 8월 31일(토)~9월 7일(토)

전시장소 : 춘천온누리교회

주최 : 춘천시화운동본부

주관 : 한국미술연구회

이단토크세미나

춘천지역 이단들의
교리와 대응방법

일시 : 9월 3일(화) 오전10:00

장소 : 춘천온누리교회

발제 : 신현천 목사(춘천이단상담연구소 소장)

주최 : 춘천시화운동본부

주관 : 춘천이단상담연구소



마마클럽기도회

부모와 자녀에게
성령의 바람이

일시 : 9월 5일(목) 저녁7:00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 신용백 목사(시냇가푸른나무교회)



포럼C

새로운 시대와
교회

일시 : 9월 6일(금) 오전 10:00

장소 : 춘천온누리교회

강사 : 최윤식 박사(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
전문 미래학자, 총신대 초빙교수



블레싱춘천

일시 : 9월 6일(금) 저녁 7:30

장소 : 춘천온누리교회

강사 : 지노박 선교사(뮤직아티스트, 음악가)
가나니 드보라 친선대사(쥬이시메이전시)

다시뛰는 춘천축구대회

일시 : 9월 7일(토) 오전10:00-오후4:00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참석팀 : 교계, 버스, 택시, 시청, 도청
법인

어린이꽃잔치

어린이 체험부스
복음전도초청

일시 : 9월 7일(토) 오후1:00-오후4:00

장소 : 호반체육관

주관 : 어린이 전도협회

제2회 성시아카데미 성준스쿨

미래를 준비하라

기간 : 9월 9일~10월 21일

(매주 월요일, 6주), 저녁7:30-9:30

장소 : 춘천광장감리교회

대상 : 춘천교회청년

회비 : 3만원(수료 후 등록금은 다시 드립니다)

주최
주관

춘천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목회자연합회, 춘천올리클럽,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춘천교경협의회, 춘천장로교연합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춘천기독교사회복지협회, 춘천 운전기사 선교회, 강원지부군선교연합회, 강원CBS
CTS강원방송, 강원기독교문인회, 강원도 기독교미술연합회, (사)춘천 연탄은행 밥상공동체, (사)베드로선교문화센터
(사)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사)성시합창단,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YMCA, CCC, DFC, ESF, GBT, IVF
JDM, 예수전도단, 어린이전도협회,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통일광장 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기드온협회 춘천캠프, 느헤미야국가기도회, 마마클럽, 민들레증보기기도회 수요목회자기도회, 이스라엘기도회

문의

춘천시화운동본부 010-9698-2993